

工團여성근로자

직업병 무방비

한국여성연구 5百34명 설문조사

제조업체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업병을 유발하는 남부(鄭鉉相)가 최근 연구지「여성노동자(제2호)」에 발표한「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은 작업 중 각종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직업병의 위험에 방치돼있을 뿐만

제조업체 여성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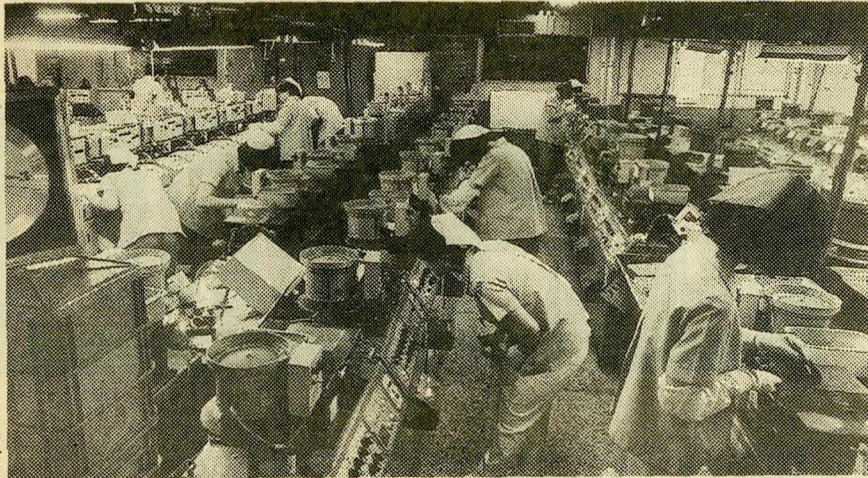
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연구회(대표

안전교육 소홀... 不妊 유산 위험 많아

“시너 본드 有害물질속에 방치 두통 視力저하” 등 73%가 호소

안전교육 소홀... 不妊 유산 위험 많아



제조업체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가 작업중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전자업종의 경우 시너 본드△봉제업종에서는 본드 시너를 통한 △기계금속 업종에서는 시너 티시이 본드△신발 고무업종에서는 본드를 사용한 시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노동자들의 73.1%는 작업성과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갖게 되는 직업성 질환에도 시달리고 있다.

우유해물질을 다루지만 약품을 쓰는 모를다고 말해 취급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나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작업환경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눈이 침침하다(38.9%·복수 응답)·이화질(머리가 아프다)(38.4%)·손목 아파(37.6%)·허리가 아프다(34.5%)·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리다(23.6%)·다리가 붓고 아프다(23.4%) 등 직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불쾌감을 호소했다.

여성연구회는「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취급했을 때 물에 오래 담글 수 있는 이크고 월경주기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면서「유기용제중 벤젠」은 높은 온도 노출됐을 때 백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 물질로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물질인데도 8명의 나 되는 여성노동자들이 다루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불쾌나 고무신 발음종의 경우 미신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다리허리 손목 어깨 팔꿈치 등을 호소했고 전자업종의 경우 세밀한 부품을 조립하는데 따라 피부하고 두통이 온다고 말해 직업성 증상을 시사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납 중독에 걸리면 월경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불임 유산 기형아출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50.3%가 현재 업무를 전업의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이 유해적이라고 믿는다는 사람은 69.1%·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7%를 차지했다.